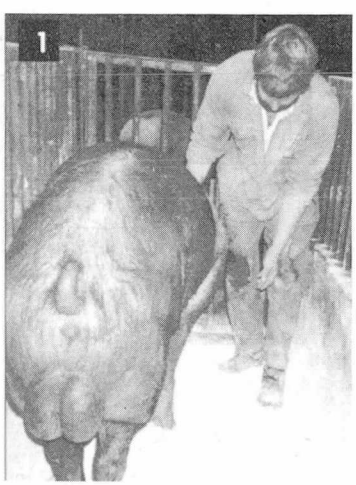
종돈의 취급방법
-후보 수퇘지의 군사에 의한 효과-

-홍 보 부-

종웅돈의 능력과 번식행동은 관리에 의한 영향이 크다. 활력이 없거나 신경질적, 공격적인 성질은 그 종웅돈이 어렸을 때 받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후보 수퇘지의 훈련이다. 종웅돈은 사람을 잘 따르기 때문에 훈련시키기가 용이하다. 잘 훈련된 종웅돈은 활동적이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1. 자돈 무렵부터 군사한다.

먼저 종웅돈과 관리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종웅돈이 약령일 때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어둠으로써 웅돈의 훈련은 훨씬 간단해진다. 그 종웅돈이 어리면 어릴수록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맺기가 쉬워진다. 또한 온순한 웅돈일수록 다루기가 쉽다〈사진1,2,3〉.



〈사진1〉관리자와 웅돈의 신뢰관계가 교배관리 성공과 직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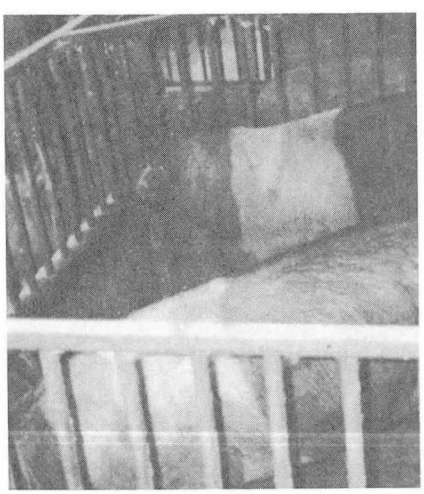
〈사진2〉웅돈의 보조는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태만해지기 쉽다.

〈사진3〉석회를 바닥에 깔아 웅돈이 단단히 버티도록 해준다.

나이 어린 종웅돈은 사용을 시작하는 시기가 까다롭다. 오랜동안 단독으로 사육해오던 교배미경험의 후보 수퇘지의 경우, 암퇘지 근처에 데려가기만 해도 신경질적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때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며 후보 수퇘지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자돈시기부터 2~3두의 웅돈을 같은 돈방에서 군사(群飼)하는 것을 권한다. 이렇게 하면 후보 수퇘지들은 서로 부딪치며 교배하려는 몸짓을 한다. 웅돈은 특히 발정중인 모돈의 냄새나 사용중인 종웅돈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극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사육한 웅돈은 첫 교배부터 잘 승가(乘駕)할 수 있게 되며 활력도 넘친다. 자신의 농장에서 종웅돈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유한 종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후보 수퇘지의 군사는 돈방절약에도 도움이 된다〈사진4〉. 그러나 과밀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급이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군사하게 되면 웅돈들은 서로 상대방을 인지하게 되어 지루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군사함으로써 단독 사육한 웅돈 고유의 문제(원인불명으로, 성숙 전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웅돈이 있다)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종적인 선발은 웅돈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부터도 가능해진다.



〈사진4〉웅돈을 군사하면 사용초기의 교배가 용이해진다.

"후보 수퇘지의 군사는 돈방절약에도 도움이 된다〈사진4〉. 그러나 과밀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급이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군사하게 되면 웅돈들은 서로 상대방을 인지하게 되어 지루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후보 수퇘지는 서로 올라타서 항문에 교배하려고 해서 페니스나 직장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따라서 웅돈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서 관찰하여 자돈의 항문에 페니스를 넣지 않는가 주의한다.

돼지끼리의 분쟁도 종웅돈의 능력저하의 원인이 되지만, 같은 배의 웅돈이나 이유돈의 단계부터 동일 돈방에서 사양한 경우에는 서로 공격성을 보이는 일이 없다. 이는 종웅돈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도 변함없다. 그러나 웅돈이 너무 자주 승가 기미를 보이면 생리적·정신적으로 손상을 입기 전에 떼어서 사육해야 할 것이다.

대개 사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1개월 정도는 1돈방에서 사육하고 그 후에는 1두씩 분리시키는 것이 좋다고 한다.

양돈장 중에는 군사를 계속하는 농장도 있다. 그러나 군사를 계속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①웅돈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군사의

효과는 감소한다. ②웅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이 증가하고 서로 경합하게 된다. ③취급이 어려워져 군사한 돼지들 사이에서 우열이 생기며 약한 쪽의 웅돈을 돈방에서 꺼내는데 시간이 걸린다. ④군사의 경우 한 마리만을 갱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웅돈을 한 마리씩 분리시킬 때 동료가 없어지면 활력을 잃는 돼지도 있지만 곧 바로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게 된다.

2. 후보 수퇘지를 처음 교배시킬 때의 포인트

처음 후보 수퇘지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성숙한 종웅돈을 사용하여 교배해 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다. 그렇게 하면 약웅돈의 교배가 잘 되지 않더라도 수태에 지장이 없다. 후보 수퇘지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해도 좋지 않지만 너무 사용하지 않아도 좋지 않다. 즉 웅돈에게 흥미를 지속시키게 하려면 주 2~3회의 사용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금물이다.

후보 수퇘지의 상대로서는 선발한 지 얼마 안되는 길트가 적당하다. 후보 수퇘지는 체격이 작아 길트가 크기면에서 적합하다. 그러나 양자 모두 교배경험이 없고 더욱이 신경질적인 경우 교배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작은 웅돈과 큰 모돈의 결합도 웅돈의 페니스 위치가 맞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교배가 간단히 끝나면 후보 수퇘지의 의욕도 높아지기 때문에 후보 수퇘지의 상대로는 크기가 작고 경산인 모돈이 이상적이며 튼튼한 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교배중에는 항상 교배돈방 내에 들어가서 관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웅돈의 페니스 위치와 확실히 사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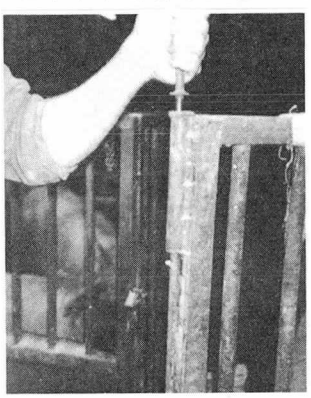
웅돈중에는 사정하기 전에 페니스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음부 밖에서 사정해 버리는 수도 있다. 이 때 웅돈의 페니스 위치와 모돈의 음부 위치를 맞춰 주기 위해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모돈의 음부가 상처 등에 의해 변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또한 종부시에는 관리자가 플라스틱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위생관리면에서 1회 교배마다 장갑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배의 경우에는 모돈을 웅돈이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웅돈은 자기자신의 세력권에서라면 다른 장소에서보다도 교배에 들어가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웅돈은 통로나 다른 돈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새로운 주위환경에 정신을 빼앗겨 모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된다. 만일 모돈과 웅돈이 싸움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웅돈 자신의 돈방에서라면 싸움을 잘 수용한다. 웅돈중에는 다른 돈방으로 이동시켜가면 신경질적으로 공격적이 되는 돼지도 있다.

3. 교배돈방의 설계

교배돈방의 구조와 설계는 효율적인 종부를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돼지와 관리자가 무리없이 움직일 만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문은 재빨리 개폐되며 잠글 수 있는 것으로 한다〈사진 5〉.



〈사진5〉웅돈방 문의 잠금장치는 확실해야 하며 재빨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바닥은 돼지가 단단히 버틸 재질로 되어있어야 한다. 미끄러지기 쉬운 바닥에서는 모돈

에 올라타기가 어려워 웅돈의 의욕을 감퇴시킨다.

후보 수퇘지에게 있어서는 바닥재질이 보다 중요하다. 그 대책으로서 소량의 보료를 깔아도 좋다. 마루바닥 위에서 교배를 시키는 농장도 있는데, 마루바닥 위에서는 안심하고 교배할 수 없다. 또한 마루바닥에서는 발의 상처를 입기 쉽고 웅돈의 수명도 짧아진다. 교배돈방은 자주 세정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로 하여 교배에 의한 질병 감염을 줄이도록 한다.

종웅돈사는 온도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너무 더우면 번식성이 저하되고 불임증도 증가한다. 날씨가 더워지면 하루중에서 가장 서늘한 시간대에 교배하도록 신경쓴다. 지나치게 더우면 스프링쿨러나 수류의 냉방기구를 설치한다. 사료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너무 비만인 웅돈은 움직임이 나쁘고 활력도 저하되며 모돈에 대한 체중부담이 커진다. 또한 비만인 돼지는 더위에 약하다. 반면 마른 돼지는 일반적으로 공격적이고 급이전 교배가 단시간에 끝나는 경향이 있다.

교배계획의 작성은 돼지에게도 관리자에게도 성적향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중 일정시간을 교배시간으로 할당한다. 가장 좋은 교배시간은 아침 급이후 1시간 후이지만 돼지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돈중에는 저녁 무렵의 종부를 선호하는 돼지도 있다.

관리자는 일의 편리함 때문에 웅돈을 선발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특정 웅돈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성숙한 웅돈의 사용은 주 5회가 한도이다. 과다 사용은 수태율 저하를 초래하므로 웅돈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한다. 질병이 원인으로 수태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온이 높을 때 웅돈을 교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웅돈에 의심가는 점이 있다면 정액검사를 해봐야 한다.

후보 수퇘지의 정자는 성숙한 웅돈의 정자에 비해 수태율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후보 수퇘지는 7~8개월령이 될 때까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기록을 해두면 수태불능의 원인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웅돈은 관리자와 가장 좋은 벗이기도 하지만 서로 경계하는 면도 있다. 약간의 인내와 배려,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교배결과는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養豚

〈Pig International지 '93년 2월호에서〉

양돈토막상식

• 변비가 심할 때

돼지 쓸개(膽) 1개를 씻어서 즙을 짜내고 껍질은 버린다. 이 쓸개즙에 차숟가락으로 식초 한술을 넣어 갠다. 이것을 관장기(灌腸器)로 항문에 깊이 넣으면 된다. 돼지쓸개가 말랐을 때에는 끓인 물 한 컵을 부어 불린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2~3회 하면 대변은 곧 통하게 된다.

• 당뇨병이 심할 때

수퇘지 쓸개(膽) 5개와 천화분(天花粉) 1돈쭝(3.75g)에 물 1되 정도를 부어 은근한 불로 조린다. 물기가 없어지고 말랐을 때 꺼내서 다시 말려 가루를 만든다. 이것을 꿀과 개어 녹두알 크기만한 환약을 만들고 매일 세 차례 식후마다 다섯알을 입에 물고 양치질을 하며 삼키면 된다. 이렇게 계속하면 매우 효력이 있다.